



전국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중소병원간호사회가 창립했다.

중소병원간호사회 창립 ... 일하고 싶은 병원 함께 만들자

초대회장에 김영애 간호부장

전국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중소병원간호사회'가 출범했다.

중소병원간호사회가 창립총회를 9월 27일 갖고 첫 발을 내디뎠다. 전국 중소병원에서 간호부서장과 간호사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초대회장으로 창립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애 서울성심병원 간호부장이 선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개회사를 한 김영애 창립추진위원장은 "1994년부터 서울지역 중심으로 활동해온 중소병원간호부서장회가 오늘 중소병원간호사회를 창립할 수 있게 해준 초석이 됐다"면서 "앞으로 중소병원간호사회는 중소병원이 당면한 정책과제 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하고, 회원들이 간호 현장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소병원간호사회가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면서 "간강하고 일할 맛 나는 간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격려사를 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사가 확보돼야 하는데, 지역별과 중소병원이 간호사 채용에 큰 어려



창립추진위원회 위원들과 내빈들이 함께 자리했다.

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소병원간호사회와 협력하면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면서 "간호사 이직률이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중소병원이 활성화되고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를 한 이 송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중소병원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보건 의료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간호사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간호수가 현실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소병원간호사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며, 여러분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은 축사에서 "중소병원간호사회가 간호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며 한국 간호의 미래를 열어가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병원간호사회는 미래 간호 100년을 위해 매진하면서, 중소병원간호사회

회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신경림 전국회의원이 초청돼 '간호 관련 이슈 및 변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창립총회에서는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1994년 서울시중소병원간호(부)장회가 조직돼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5년 중소병원간호부서장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중소병원간호사회를 창립키로 뜻을 모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작업을 해왔으며,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하게 됐다.

임원선거를 통해 초대대회장에 김영애 서울성심병원 간호부장이 선출됐다. 감사로 조성현 구로성심병원 간호부장과 이미숙 베스테인병원 간호이사가 뽑혔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으로 간호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 중소병원 관련 단체와의 협력, 환자안전 세미나 개최, 보수교육 개발을 위한 준비, 병원 유형별 간호업무 매뉴얼 개발, 간호부서장 밴드 활성화, 홍보물 제작 등을 정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유휴간호사 현장실무훈련 지원사업 주력

실기 및 실습강사 표준화 힘써 간호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호응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유휴간호사 현장실무훈련 지원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중소병원에서 유휴간호사를 채용한 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 의뢰해 현장실무훈련을 시킬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소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산시키고, 간호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예정) 병원 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실기 및 실습강사 표준화 교육'과 '간호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기 및 실습강사 표준화 교육 = 전국 6개 권역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휴간호사 교육의 내용과 질을 표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유휴간호사 실기교육 강사 또는 현장실무훈련 프리젠테이션 활동하고자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을 상반기에 5회 교육이 실시된 데 이어 하반기 교육이 9월 21일(6차)·22일(7차)·27일(8차) 3회 진행됐다. 총 317명이 교육을 받았다.

유휴간호사들을 지도할 때 필요한 핵심기본간호술기를 직접 실습해보고 점검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프리젠테이션과 멘토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코칭·갈등관리·의사소통기술 등에 대해 배웠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풍부한 임상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간호사들이 표준화 교육 이수 후 강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유휴간호사들의 재취업과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표준화 교육과정의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역량강화와 간호업무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 중소병원 간호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올 상반기에 3회 실시했으며, 하



실기 및 실습강사 표준화 교육(8차)을 마친 간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간호관리자 역량강화 교육(4차)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반기 교육이 9월 28~29일(4차) 열렸다. 수간호사 이상 간호관리자 총 400명이 교육을 마쳤다.

교육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강연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사례가 소개됐다. 중소병원 경영혁신, 조직

문화와 갈등관리,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간호관련 정책과 윤리, 환자안전법과 간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간호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 1522-1755 / www.RNjob.or.kr 김숙현 기자 skkim@

강원 고한사북보건지소 홍귀영 지소장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보건지소장에 홍귀영 정선군 문래보건지소장이 임명됐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지소장을 맡게 됐다. 9월 12일자.

홍귀영 지소장은 1978년 강릉영동대를 졸업했으며, 동해동인병원에서 간호감독을 지냈다. 1991년 공직에 입문해 정선군 문래보건지소장, 문래보건지소장으로 일했다.

의료사각지대에 위치한 보건지소소에서 지역보건사업의 총괄적



인 업무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선군수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홍귀영 지소장은 "33년간 쌓아온 간호 및 보건업무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관심 있는 간호사 참여하세요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창립총회가 10월 15일 오후 2시 명지대 서울캠퍼스 행정동 5층 강당에서 열린다.

미국과 한국의 타말과연구소에서 동작중심 표현예술치료를 공부하고 현장에서 적용해온 사람들이 모여 학회를 발족한다. 학회 측은

"표현예술치료를 예술과 교육, 심리치료가 하나로 만나 이뤄지는 변형학문이며,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방적인 실기학문"이라고 밝혔다. 창립총회에 이어 '표현예술치료를 국제적 상황 및 한국적 전망' 주제 특강이 진행된 다. 참가문의 02)318-5002.

울산시간호사회 이화선 사무처장

울산시간호사회는 사무처장에 이화선 교육부장을 임명했다. 10월 1일자.

신임 이화선 사무처장은 2004년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인제대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대림성모병원, 울산병원을 거쳐 인산병원 간호과장을 지냈다. 울

산과학대, 춘해보건대 등에서 외래강사로 활동했다.

2014년 3월부터 울산시간호사회 교육부

장으로 일해왔다. 김숙현 기자 skkim@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위탁 www.RNjob.or.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대한간호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

2016 유휴간호사 현장실무훈련 지원사업 안내

유휴간호사 채용

현장실무훈련 참가

훈련비 지급

- 참가기관 기준(가, 나 요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예정) 병원
나. 실습지도자 교육 및 간호관리자 교육 이수 병원
- 유휴간호사 기준 : 경력단절 기간 1년 이상 유휴간호사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훈련비 지급

유휴간호사를 (수습)채용한 병원에 현장실무훈련비 지급

기간	훈련비 지급	지급액
1주	50,000원 X 5일	250,000원
2주	50,000원 X 10일	500,000원
4주	50,000원 X 20일	1,000,000원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예시: 4시간 근무 50% 지급)

환자가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확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권역센터 안내

- 서울·강원 ☎ 02)2268-2631~3
- 인천·경기 ☎ 032)441-2926
- 대전·충북·충남 ☎ 042)825-0749
- 대구·경북 ☎ 053)756-8487
- 부산·울산·경남 ☎ 051)442-3824~5
- 광주·전북·전남·제주 ☎ 062)222-5025

※필요서류는 홈페이지(www.RNjob.or.kr)에서 다운로드